

제주도 본풀이 연구의 참다운 길

김헌선(경기대)

제주도 본풀이란 무엇인가?

제주도에 굿이 성행하였고 그 잔상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굿이 변화하고 시대가 달라지면서 굿의 흔적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음은 숨길 수 없다. 제주도에 전승되는 굿이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허망한 노릇이 된다. 이제 굿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이 화급하게 요청된다.

제주도의 굿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본풀이다. 본풀이는 토박이들이 지칭하는 것으로 심방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내력을 푸는 것을 본풀이라고 하므로 이것은 분석 범주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토착갈래의 명칭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¹⁾ 토착갈래이므로 그들 스스로 이러한 갈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심방이 특정하게 신의 본을 풀 때에 정서적인 개념으로 흥미로운 말을 한다. “본을 푸난 신나락 만나락을 허영 칠성 한집님은”이라고도 하고, 이와 달리 “초공 임정국 상시당 하나님, 난산국에 본을 풀었습네다.”라고도 한다. 앞에 하는 말은 본을 풀기 전에 하는 말이다. 뒤의 말은 본을 풀고나서 하는 말이다. 본풀이에 대한 토착적 갈래 인식이 있음을 보게 된다.

더 자세하게는 본풀이 들어가는 말미와 같은 데서 하는 말이 긴요하다. “(가) 초감제 메운 신전(神前)님은 [무슨 祭次] 넘어들어 상당(上堂) 중당 하당 말석이야 금공서 설운 원정(原情) 올렸수다. (나) 위(位)가 돌아 갑기는 초공 임정국상시당 어간(於間)이 뒤했수다. 초공 난산국 신 풀저 흐는디, 삼월 삼진일 쯔지은 바랑 은영미(銀玉米) 금탁시권제 신굴라 우올리며 초공 난산국 신평저 흡네다. (다) 귀신은 본을 풀민 신나락흐는 법이웁고 생인은 본풀민 백년 원수 지는 법이웨다. 초공임적국상시당 초공 난산국으로 신평어 하전(下轉)흡서. 과광성 신평네다.”라고도 한다.

(가)는 굿드리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굿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한 굿의 순서와 현재 할 굿의 순서에 대한 경계를 가르는 것이 긴요하다. (가)는 앞에서 한 굿거리의 절차를 이르는 말이다. 초감제에서 일만 팔천신을 오게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초감제에 모신 신들을 이른다. 종합적인 청신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요점이다.

(나)는 현재에 할 굿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위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굿의 공깃상이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와 달리 당클에 모신 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나)는 임정국신을 모시는 상당 중당 하당 세 당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어간이라고 하는 말은 시공간의 사이를 이르는 말이므로 그 신을 모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초공 난산국의 본을 푸는 과정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초공 난산국의 본을 풀기 위해서 삼월 삼진날에 만든 바랑에 은옥미와 같은 쌀을 금탁시권재로 새롭게 갈았다고 하는 것이 요점이다. 초공 난산국의 본을 풀기 위해서 바랑에 쌀을 갈아서 시권재로 바치기 위해서 위로 바쳤으며, 그것으로 신을 모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초공본풀이를 하면서 그것을 본풀이의 과정을 제시한다.

1) Dan Ben-Amos, Analytical Categories and Ethnic Genres, *Genre* 2, no.3(1969), pp. 275-301 ; *Folklore Genre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5, pp. 264-291

(다)는 본풀이를 하는 용도나 기능을 해명하는 것이다. 제주도 심방의 관용구같으나 신들의 내력을 말하는 것의 기능을 수행하고 본풀이의 신 본풀이와 인간 본풀이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본풀이는 신의 본풀이와 인간의 본풀이가 있는데 신의 본풀이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을 돌보는 신의 하전이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신을 푸는 것이 이렇게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에 대한 관념은 자별하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본풀이에 대한 의미를 강력하게 지니고 있는 고장임을 명확하게 하는 대목이다. 제주도의 심방이 본풀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본풀이 섬이고 본풀이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본풀이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 심방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육지의 무당들도 본풀이를 하고 있으며, 본풀이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용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다시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된다. 본풀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제주도와 다른 것도 있으므로 이 용례를 살피도록 한다.

기본용어	구체적 예증
본, 본풀이	제석본, 제석본풀이
풀이	칠성풀이, 장자풀이, 삼태자풀이, 돈전풀이(궁상이곳), 성주풀이, 황제풀이
곳	발원곳, 제석곳, 심청곳, 궁상이곳, 산천곳(산천도량)
푸념	성인놀이푸념, 일월놀이푸념
말미	말미(바리공주), 안당말미
신가	성주신가(成造神歌)
본가	성주본가(成造本歌)
말	시루말, 마지뜨는말, 죽엄의말
청배	제석청배, 군웅청배

본, 본풀이는 제주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육지와 제주가 서로 같은 용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긴요하다. 무속의 역사적 근거가 같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증이다. 다만 신의 명칭이 다른 점은 인정된다. 같은 것이 없으므로 제주도의 무속신이 독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풀이는 본풀이의 준말이다. 육지에서 본풀이는 이러한 용례로 보건대 이 본풀이를 약칭하고 있으나 본풀이는 본풀이로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한다. 풀이는 두루 쓰이는 용어이고, 곳에서 풀이는 근본을 푸는 본풀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풀이는 본풀이의 뜻이다.

곳이라고 하는 용어는 복합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다. 층위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높은 층위는 곳의 종류가 가지 수를 이야기한다. 소규모의 곳거리도 곳이라고 한다. 곳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발원곳과 같은 것은 바로 본풀이를 부르는 곳거리라고 할 수 있다. 제석곳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거리에서 주된 것은 본풀이를 말하며, 그 주신을 중심으로 본풀이를 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평안도 같은 데서는 이를 푸념이라고 한다. 푸념은 푸념과 같이 일정하게 장단을 말하지만 각별한 뜻이 있어서 특정한 곳에서는 이를 곳거리의 명칭으로 삼고 있으며, 평안도에서는 일월신인 일월마울의 내력, 성인신이 제석본의 내력을 구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푸념은 매우 소중한 본풀이의 용어적 이칭이라고 할 수 있다.

말미는 각별한 용어인데 바리공주본풀이와 같은 것의 서울식 용어임을 볼 수 있다. 말미의 뜻 역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종의 휴가와 안식의 뜻도 있고,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것으로서의 무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미가 간단치 않은 것은 이 말이 안당말미에도 쓰이기 때문이다.²⁾ 말미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볼 수 없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 안당말미는 본풀이의 다른 용례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점에서 안당말미는 소중한다.

성주신가는 각별한 용어이다. 본풀이 무가를 신가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데, 이것이 본래의 것인지 아닌지 일본인 학자들의 정의인지 궁금하다. 신가라고 하는 말이 있었으므로 썼을 개연성이 있고, 본풀이를 본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용어의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가가 있고 성주신의 내력을 밝히는 것을 신가라고 하면서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을 더 말했다. ‘마지뜨는 말’과 같은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성주본가 역시 각별하다. 본풀이의 한자식 말일텐데 이 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말을 대표 용어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 성주본가의 전통은 본풀이의 전통일 것이고, 성주풀이 내지 황제풀이 등으로 이르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본가의 두 가지 계통이 존재하는데, 성주풀이와 황제풀이는 본풀이를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라진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말이라고 하는 말은 서사적인 것도 포함하고 교술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으며, 말미라는 말도 있어서 같은 계통의 언어가 아닌가 한다. 말 가운데 시루말과 같은 것은 서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말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배와 같은 것을 쓰면서 이를 본풀이를 말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존재한다. 제석청배는 섭배장단으로 본풀이를 하는 것을 말하고, 군웅청배는 가래조장단으로 본풀이를 청배하는 것을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장단으로 하는 청배가 본풀이인 것을 알 수 있다. 청배장단과 섭배장단의 전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하는 전통적인 장단과 본풀이가 결합하는 것이 밝혀진다.

육지부에 본풀이라는 말도 있고, 본풀이와 대응하는 의미의 다양한 용어가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의미가 있으나, 모두 본풀이를 함의하고 있으며, 특히 굿거리의 작은 명칭에 구성 요소로 본풀이가 육지에도 다양하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에 못지 않게 육지에도 본풀이가 있어서 본풀이에 있어서 서로 깊은 심층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심층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무속의 공통점도 있으며, 육지와 제주도가 본풀이를 중심으로 무속적 신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무속의 신격이 일치하고 이에 대한 본풀이가 대체로 공통적 서사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무속의 기반을 공유하면서 역사적으로 일정하게 변화를 가지고 왔으며, 본풀이에 그러한 사고가 가장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을 말하고 있다. 무속의 신앙적 기반이나 샤마니즘의 정체성을 이러한 본풀이로 구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무속적 신앙양상이나 신관, 심지어 세계관에서도 이 본풀이의 기능에 의한 공질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

2) 赤松智城·秋葉隆, 안당ᄇ말미,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屋號書店, 1937.
김헌선, 「안당말미」의 존재 의의와 역사적 변천, 『비교민속학』 제55집, 비교민속학회, 2014, 357-402면.

서 이 본풀이의 용어적 일치와 신들의 내력을 말하는 서사의 유형적 일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본풀이의 의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본풀이는 무속의 의례인 굿에서 활용되는 굿의 절차 구성 요소이므로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굿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본풀이 구연을 연마한 무당에 의해서 구연되고, 굿의 다른 구성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의례적인 총체성을 발현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를 굿과 분리하여 의미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굿과 분리하지 않고 그 자체의 맥락과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이해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제주도의 무속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의 굿에서 구연되는 특징을 갖는다. 제주도의 심방이 섬기는 신의 일대기나 좌정담이 제주도의 독자적인 창조인가 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 육지의 굿에서 섬기는 신격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한 신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본풀이에 섬기는 신의 내력담은 육지와 공존하고 굿에서 이 신들의 내력을 풀기 때문에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제주도 굿의 구성 요소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제주도의 굿, 본풀이, 맞이, 놀이 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을 초청하고 신의 내력을 풀면서 초치된 신과 굿에서 별이는 놀이를 요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본풀이가 신의 내력과 형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의 내력과 놀이는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제주도의 본풀이는 굿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본풀이를 정리하고 굿에서 섬기는 본풀이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이 본풀이의 유형적 특성이 굿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 전국적인 본풀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 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본풀이의 유형적 기저는 다음과 같다.³⁾

지역	하위 구분	본풀이의 실제 사례
함경도	홍원지역과 함경도의 다른 지역유형	<창세가>, <황천혼쉬>, <속영랑앵영랑신가>, <도랑선배정각씨>, <오기풀이>, <문전풀이>(궁상이굿), <대감굿>, <생굿>, <살풀이>, <짐가제굿>, <산천굿>, <안택굿>, <문굿>, <충열굿>
평안도	서부형과 동부형	<신선세천님청배>, <원구님청배>, <대석님청배>, <일월놀이푸념>, <성인노리푸념>(삼태자풀이), <성신굿>
서울	경기북부와 일치	<말미>, <안당말미>*, <황제풀이>*
경기도	북부형과 남부형	<바리공주>, <성주풀이> <성주본가>(황제풀이), <제석본풀이>, <시루말>
충청도	부여형(저산팔음형)	<제석풀이>, <장자풀이>
경상도	동해안과 남해안의 지역형	<오귀풀이> 또는 <발원굿>, <당금애기>(시준굿 또는 세존굿), <심청굿>, <계면굿>, <손님굿>, <악양국왕자노래>, <시무염불>
전라도		<바리데기>(오구몰림), <제석굿>, <칠성풀이>, <장자풀이>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지장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
	당신본풀이	<서흥리본풀이>, <송당본풀이>, <괘넉깃또본풀이>, <토산일헛당본풀이>, <토산야드렛당본풀이>, <칠머릿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등
	조상신본풀이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구실할망본풀이>, <광청야기본풀이>, <고대장본풀이>, <양이목수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
	특수신본풀이	<허웅애기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군웅본풀이>, <삼두구미본풀이>, <영감본풀이>

무속에서 섬기는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다. 무속의 신앙 자체가 다신신앙 체계를 견지하

3) 김현선, 본풀이, <<한국민속문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4.

고 있으므로 신들이 많고 신이 여럿이기에 신의 내력을 말하는 신의 본풀이가 유형으로 형성되고 여러 가지 신들의 본풀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들의 내력은 무속의 신앙적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주로 삶의 고향을 위한 신격, 죽음에 관련된 신격, 집안의 수호자인 집터지키미 신격, 마을을 수호하는 신격 등이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신들의 내력은 전국적으로 차이점이 적고 오히려 공통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국적인 본풀이의 서사유형에 공통점에 근거하면 굿이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같은 무속신앙의 세계관에 근거한 굿들이 성행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국적인 굿의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굿을 종교적인 의례로 본다고 한다면 굿은 종교적인 신격을 모시는데 이 이야기의 저변에 바로 본풀이가 가로놓인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본풀이는 무속신화의 성격을 가진다. 신화적 속성이 엄격하게 신화적 정의와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적 속성에 근거한 신들의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본적 면모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무속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신이고, 무속의 신들에 대한 내력을 이야기의 서사성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분명하게 신화라고 하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무속신화적 성격은 건국신화와 그 열개를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속신화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매우 세련되게 발달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고대영웅신화의 골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속신화와 영웅신화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무속신화의 기본적 성격이 잘 드러나는 점을 보이고 있다. 무속신화와 영웅신화가 근간이 같은 점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속신화로서의 본풀이는 특정시대의 현상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영웅신화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본풀이가 고대적 특성이나 그 이전시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본풀이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특정한 이야기의 기본적 성격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의 요소를 반영하고 불교적인 내용을 반영하면서 본풀이를 구성하게 된 것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무속신화로서의 본풀이는 전설이나 민담에서 많은 소재를 구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일정하게 신화적인 내용을 다시 구성하고 무속신화로서의 성격을 구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민담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일정하게 변형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점을 들어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한 견해도 있다.⁴⁾ 본풀이의 소재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풀이는 구전서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부르는 서사시이고, 무당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무당서사시는 농민서사시인 서사민요, 광대서사시인 판소리 등과 비교되는 특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를 구전서사시로 보면 매우 수준이 높은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풀이를 무당서사시로 연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서사시인 판소리와 분별되고, 세속서사시인 서사민요와 다른 점이 가장 주력해서 연구해야 한다. 신성서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본풀이는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추고 있다. 세속서사시, 신성서사시, 예술서사시의 삼자관계에서 무당서사시가 지니는 가치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풀이를 구비서사시로 다루게 되면 세계서사시와의 비교론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본풀이의 속성이나 기본적 성향이 세계의 서사시와 일정하게 관련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4)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다. 본풀이를 서사시로 연구하면서 시대적인 의의를 논해야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 연구는 이러한 각도에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신화란 무엇인가?

본풀이를 문학적인 관점에서 무속신화로 다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무속신화를 무속과 신화가 합쳐진 말로 본다면 본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새롭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신화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공유하고 이의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신화적 정의 속에서 무속신화의 근본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에 대한 이야기이다.⁵⁾ 신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신들이 존재했던 시대의 산물이고, 신이 존재하는 한 거둬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신화이다. 현재 과학이 발달하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므로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정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 자체가 일정한 제약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박하고 신화를 신에 대한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화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오히려 현존하는 세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명료하게 정의하자면 신화는 어떻게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되었는지 그 기원을 해명하는 신성한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⁶⁾ 천지만물의 생성과 기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신화이며,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 신화이고, 신화의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화라고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각도에서 신화적 의문 해명이 과학적 설명처럼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궁극적인 해명의 한 방식으로 신화학적 가설과 구도에 의해서 우주와 세계에 해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각도에서 신화를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 사유의 근간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소중하다.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여 문화적으로 기원을 이룩했는가 하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과학과 같으면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소중한 이야기이고, 우주와 세계의 존재를 해명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신의 이야기나 신화적 해명에 의한 설계를 담은 것이라고 하는 전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부적인 이론과 관점에 의해서 신화를 보는 정의나 해명의 이론이 차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색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신화의 정의에 대한 일련의 미세한 이론을 고찰하고 신화에 대한 정의와 해명을 주도적으로 고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리의 핵심적 면모는 흔히 신화 이론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양한 신화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관점을 반영하고 반추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는 굴레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화에 반드시 신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들의 범주에 신인, 영웅, 특정한 인물신 등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물을 비롯하여 식물 등이 신화의 주된 인물이 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창세신화에서 주로 보이는 것은 신이 주가 되고 다른 인물들이 부가 되면서 우주천

5) 이에 대한 논의는 기왕에 낸 저작의 일부에 의거하여 다시 서술한다. 김현선, 왜 지금 신화인가, <<아시아 신화여행>>, 아시아, 2015.

6) Alan Dundes, *Sacred Narrative: Readings in the Theory of Myt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A myth is a sacred narrative explaining how the world and man came to be in their present form."

지만물의 창조(cosmogony), 신의 창조(theogony), 인간의 창조(anthropogony) 등에 대한 내력을 전하는 것이 신화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⁷⁾ 인간의 보편적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신화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한 경향을 창세신화에서 흔하게 보이는 바이다. 창세신화에서 다양한 인물이나 군상이 우주창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것들과 함께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화는 신성시되는 이야기(the sacred narratives)이다.⁸⁾ 신성한 이야기, 신성시되면서 신성의 근원을 제시하는 이야기 등이 신화의 정의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신화를 보는 중요한 것이다. 세속적인 이야기(the secular narratives)와 대립하면서 신성한 이야기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세속적인 이야기와 다른 신성한 이야기의 면모가 신화를 정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신성한 이야기가 곧 신화의 한 근거를 이룬다. 신성시되면서 동시에 신화적인 의미의 신성성을 확보하는 제반 과정을 모두 반영하는 이론이다.

동시에 신화를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신화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하는 정의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하나의 총괄적 규범이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사회통합적 기능이나 면모는 신화의 현실맥락적 기능을 보여주는 점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신화는 단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인간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신화의 신성한 기능을 이러한 각도에서 해명한다.

신화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하는 바는 여러 모로 암시하는 바가 있으며,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론이 긴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관점을 보이는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구실을 한다.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보편성이나 보편적 심성을 탐구하는 주제와 이론으로 귀결된다. 신화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바로 신화의 심성을 탐구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심층심리학이나 구조주의 이론은 여기에서 산출되는 이론이다. 인간의 신화적 창조 이면에 인간의 무의식이나 정신작용의 구조가 있어서 이와 같은 보편성을 창조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면모이다. 그 점에서 정신분석학이나 구조주의는 일정한 작동을 하고 있는 이론이다.

신화에 대한 기능주의적 이론이나 현장론적 이론은 신성한 이야기나 이야기인 신화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부족의 신성한 설화인 신화는 “부족의 일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제의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위, 사회적인 행동, 실리적인 행동 사이에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⁹⁾ 신화가 일정하게 사회적인 구조적 맥락을 형성하면서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신화의 기능론적 해명은 그러한 점에서 값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능주의적 이론에서 종래의 이론이 지니는 결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능주의적 이론을 개척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아울러서 현장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자료의 현장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이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이나 현장론적 맥락의 이론은 신화의 맥락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이론이고 신화를 보게 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모두 신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이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 핵심적

7) 김현선, 창조신화 연구 서설,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1. 창조신화를 예증삼아 인류의 보편적 사유와 심성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유경, <<원형과 신화>>, 분석심리학연구소, 2006.

8) Alan Dundes, *Sacred Narrative: Readings in the Theory of Myt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9) 말리노프키, <<원시신화론>>, 민속원, 1996.(서영대번역)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할 수 있다.

신화 연구의 길

신화 연구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자료이다. 신화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직접 보면 자료의 특성이나 내용을 쉽사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를 알고 자료를 통해서 진정한 신화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화 이해는 다 좋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많은 자료들 가령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자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세상 전지구의 신화 자료를 모두 아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이 궁극적인 이해인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수학 연구에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리에서 논증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신화의 자료를 실제적으로 모두 알고 이를 결론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점을 단박에 증명할 수 있다. 수학에서 거론하는 논증을 도입하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쉽사리 알게 된다. 논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귀납, 유추, 연역이 바로 그것이다.

신화 자료가 1,000개가 있다고 하자. 이 모든 신화 자료를 모두 보고서 모든 신화는 무엇이라고 결론하는 것은 신화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도록 한다. 이 문제를 확대하여 이 지구상의 모든 자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신화를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도출하지 못할 어리석음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화 자료가 이리이러한 것이 있으니 다른 신화 자료도 이리할 것이라고 하는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 유사신화의 근거를 들어서 다른 신화 모두를 정의하고 추론하면서 유추하는 추리를 하는 것이 신화 연구의 진정한 길일 수 없다. 유추는 유사함에 의한 방법론적 추리이기 때문에 온당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하는 것은 더구나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추에 의한 신화 연구는 실제적인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역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신화에 대한 모든 결론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모든 신화는 이러한 것이라고 하고, 그 신화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전제에 의해서 신화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의 전제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일정하게 정리된 것에 대한 연역 방법의 고안은 신화를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 연역 법칙으로 모순율과 배중률을 선택하게 되면 연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 연구에서 연역적 증명을 통한 구조의 발견과 이에 대한 보편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은 학문적 명제와 어긋나지 않는다.

신화 연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역적 증명이나 논리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화 연구에서 방법이나 방법론을 내세우고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구의 경향이 모두 연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례를 논증하고 전제를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학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화 연구에서 연역을 제시하고 연역에 의한 논증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길이기에 이에 입각한 논증의 방법을 선정하고 증명을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 고전적인 신화 연구의 이론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주로 비교언어학에서 비롯된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자연신화학파 또는 비교신화학의 관점에서 거론한 언어질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신화학파의 이론이고,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지를 보인 것 바로 비교신화학의 삼기능체계론과 같은 것이었다.

자연신화학파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프리드리히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 1823-1900)는 인도-유럽어족의 신화를 인도-유럽어족의 공통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문명적인 기원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학파는 언어, 신화, 문명 등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들을 확장하여 종교적 기원까지도 해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인도유럽어족의 신화들에서 신들은 동일한 관념이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하여 해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	산스크리트 (Sanskrit)	라틴 (Latin)	리투아니아 (Lituania)	고대슬라브 (Ancient Slav)	고대그리스 (Ancient Greece)	고대게르만 (Ancient German)
불	Agni	Ignis	Ugnis	Ogny		
제우스	Dyus	Jovis			Zeus	Zio

아그니는 불을 뜻하고, 디아우스는 하늘을 뜻한다. 음상적인 유사성과 음운 대응에 의해서 이들이 같은 계통이나 어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연관성이 있는 신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전개하였다. 그렇게 해서 자연신화학자들의 해석 방법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아그니는 베다의 문헌에서 자연적인 물질로서의 불을 뜻하면서 동시에 불의 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내재된 힘까지도 상징하게 된다. 자연의 상징이 되는 힘의 원천 등을 활용하면서 종교적인 자극을 사용하게 된다. 불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불이 인류문명에 지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 자연물은 우리에게 무한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자연의 힘이 물질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종교로 인식될 수 없다. 자연의 살아 있는 힘을 간직하려고 한다면, 이들은 신이라고 하는 점에서 영력을 가지고 동시에 인격적 주체로 변형되어야만 한다. 자연적 현상에서 인격적 주체로 변형되면서 이들의 힘이 신의 명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언어의 사고가 결국 이러한 힘의 전환에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된다.

언어에 인격적 수식어가 첨가되면서 영적인 존재로 가득한 신의 세계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 신화적 추가가 결국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언어의 깊은 성찰과 고찰을 통해서 첨가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신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를 더욱 첨가하고 해명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베다의 문헌에서 본다면 태양을 가리키는 말이 12개나 되고 이 12개의 말이 친근성이나 유사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신화를 만들어내고 신화를 거듭 꾸며내게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신의 계보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들을 하는 일정한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신은 자연현상을 인간의 행위처럼 표현하게 되고, 메타포의 사용에 의해서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막스 뮐러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화는 병든 사유의 산물이고, 종교 역시 병든 사유가 만들어낸 허구 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뮐러는 신화와 종교를 구별하면서 신화는 잘못된 것이고 종교는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성을 갖추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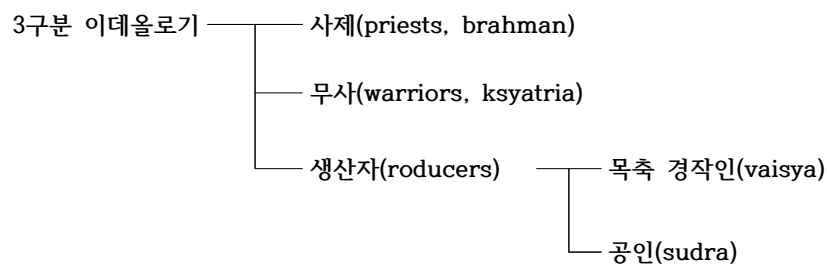
막스 뮐러와 같은 자연신화학파의 학자 견해는 문제가 심각한 특성이 있다. 신화를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신화를 왜곡시킨 연구의 관점이 남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관점의 비교신화학을 비교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승계하면 이룩한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이 바로 조르쥬 뒤메질(Georges Dumézil, 1898-1986)이다.

뒤메질은 신화를 새롭게 정의하여 신화는 그 신화를 만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 사상, 믿음, 제도, 의례 등을 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실재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신화를 그 신화의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분리할 수 없으며 모든 관습의 근거를 대며, 거대 관념의 산물임을 말하고, 아울러서 신화를 보다 큰 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명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숙고의 결과에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비교신화학의 고안이고 이를 3구분 이데올로기(l'idéologie tripartie)라고 명명한다.¹⁰⁾

비교신화학의 3구분 이데올로기는 체계적인 진화를 거듭하였다. 리틀튼에 의하면 뒤메질의 이론은 인류학적 판단에 의하여 세 국면으로 나누었다. 형성단계(1924-1938), 발전단계(1939-1949), 개화만발단계(florescent phase, 1949-1966년 현재)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¹¹⁾ 모색하고 착상하여 시작하는 것과 이를 한창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이론적인 것의 개화와 한창인 단계를 이렇게 분할하였다.

뒤메질 이론의 핵심적 발전은 3구분 이데올로기와 3기능구조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것에 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엄격하고 준열한 잣대에서 벗어나서 다소 완화된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특히 전체와 부분, 개별적인 것과 총체적인 것을 서로 다루면서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뒤메질의 이론은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하면서 해석의 폭을 넓혀나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신화의 이론은 혁신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 인도유럽어족의 신화에 대한 관념을 해명할 수 있는 틀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외적이지 않다. 이 이론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틀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이론적으로 시험적인 도전을 담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구분 이데올로기는 1938년 이후로 진행된 연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특정한 신들의 위계를 유사성과 차이점에 의해서 이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여러 가지 신화에 확대적용하면서 탄생한 것이다. 로마 주 사제의 3구분 체계와 연관되면서 이들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후에 1950년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여 완화된 형태로 3기능구조(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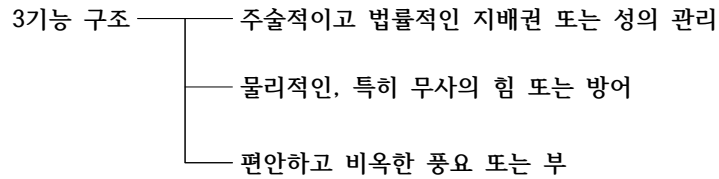
10) C. Scott Littleton, *The New Comparative Mythology: An Anthropological Assessment of the Theories of Georges Dumézi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Bruce Lincoln, "Dumézil's German War God", *Theorizing Myth: Narrative, Ideology, and Scholarshi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pp.121-137; 브루스 링컨, 김윤성·최화선·홍윤희 역, <<신화 이론화하기: 서사, 이데올로기, 학문>>, 이학사, 2009, 207-232면.

11) C. Scott Littleton, 같은 책.

structure des trois fonctions) 또는 3기능이데올로기(l'idéologie trifonctionnelle)로 채택하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관념의 구체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화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화가 사회의 단면을 해명한다는 사고를 전개하게 된다. 3구분이데올로기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3기능을 채택하고 이를 구조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관련성을 새롭게 입증하는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채택함으로써 신화 연구와 종교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도 사회문화의 인식틀을 장만함으로써 이들의 연구는 소중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점에서 이 연구는 일정한 의의가 있으며 비교언어학과 비교신화학, 비교종교학, 비교사회학에 일정한 의의를 주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이론의 해명 가능한 범위와 함께 이 이론의 비교신화학적 가능성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 세계	제1기능 (La première fonction)	제2기능 (La deuxième fonction)	제3기능 (La troisième fonction)
	사제자-주권기능	기사-군사기능	서민-생산기능
인도베다 신격 (l'Inde védique)	미트라(Mitra) 바루나 (Varuna)	인드라(Indra)	아슈빈 쌍둥이 (les deux Ashvins)
마하바라타 (le Mahabaratha)	영웅 유디슈트라 (le héros Yudhishtira)	아르주나와 비마 (les héros Arjuna et Bhima)	나쿨라와 사하데바 (les héros Nakula et Sahadeva)
북유럽신화 (la mythologie nordique)	오딘과 티르(Odin et Týr)	토르(Thor)	프레이크, 프레이야, 노르드, 배네쌍둥이(Freyr, Freyja, Njord et les dieux Vanes)
로마신화 (la mythologie romaine)	세 신 가운데 하나인 주피터 (un des trois dieux de la triade précapitoline, Jupiter)	세 신 가운데 하나인 마르스 (un des trois dieux de la triade précapitoline, Mars)	세 신 가운데 하나인 쿠이리 누우스(un des trois dieux de la triade précapitoline, Quirinus)
성도예찬 (le culte des saints)	성심(le Sacré-Cœur)	성 미카엘 아케엔젤, 성 조오지 (Saint Michel Archange, Saint Georges)	성 피아크레, 성 로크(Saint Fiacre, Saint Roch)

조르주 뒤메질(Georges Dumézil, 1898-1986)의 삼기능세계 신화(Fonctions tripartites indo-européennes)

조르주 뒤메질의 신화 연구를 동아시아의 신화에 적용한 작업도 있어서 이 연구 방법의 적용 사례를 찾을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오바야시 다료의 작업이 그것이다.¹²⁾ 이 작업을 통해서 일본 천황가의 유래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일본의 왕권신화는 그 형식이나 모티프에서 고대조선이나 유구왕국의 신화와 유사한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밝힌 역저이다. 인도유럽어적 신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삼기능체계를 발견하고 이에 적용하여 확대하고 심화한 점에서 의미를

12) 大林太良, <<東アジアの王権神話 日本・朝鮮・琉球>>, 弘文堂, 1984.

가지고 있다. 위에 말한 3기능체계를 오롯하게 발견하고 증명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춘 저작이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신화 연구에 대한 많은 방법이나 방법론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서 방법이나 방법론에 대한 전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신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남매혼>에 대한 신화 자료가 있다. 이 신화 자료는 주목할 만한 신화적 내용을 함의한다. 가령 이 신화는 남매가 근친상간을 하거나 특정한 우주적 사건에 연계되어 인류의 시조를 이룩하는 주체로 작동하는 것이 요점이다. 이 문제는 인류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험사리 동의할 수 없는 난문제를 가지고 있다.¹³⁾ 인류의 식인 문제와 근친상간의 문제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남매가 혼인할 수 있다니,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며, 과연 적절한 문제인가 하는 거부감과 달리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신화에서 당연하게 등장하고 유형적으로 통일성을 이루면서 일정한 변형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자료임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연구 방법은 다양하고 그 답안도 타당하게 간주될 만큼 다채롭게 등장한다. ①기능주의 ②구조주의 ③정신분석학 ④제의학파 등을 대표적인 신화 분석의 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 이론들이 현재의 신화 이론을 대표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개선되거나 앞서 나가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이론을 선택한다.

기능주의는 말리노프스키가 제안한 방법으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의 방법이다.¹⁴⁾ 특정한 지역인 트로브리안도 현지조사의 결과를 이론으로 정립하였으며, 그 이론이 한 때 절대적인 방법으로 제안된 바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이론을 응용하여 적용한다면 이 방법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모계제 사회와 모계제 사회에서 남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서 남매가 인류 원주민의 가장 최초의 조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점이 주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신화가 생성되는 것을 중시하고 이것으로 신화를 사실적으로 해석하면서 신화는 사회에서 일정하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의 신화 연구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현장의 맥락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모계제 사회의 특성이 신화와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은 신화의 요소를 구조라는 것으로 치환하고 부분과 전체의 요소를 이루는 것들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는 것에 주력한다. 남매의 존재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진 요소이지만 이들은 존재의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한 것들로 이 둘 사이의 모순이 존재한다. 인간의 부재와 인간의 존재가 역설적이고도 동시에 모순적인 사고의 표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친금기의 요인과 근친상간의 요인이 모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대상의 특징이다. 근친금기와 근친상간, 하나에서 유래한 것과 둘에서 유래한 것들이 서로 모순적이므로 이들의 상동성은 모순을 제거하고 하나의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사고의 표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존재의 모순이 진실이고

13)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우리 모두는 식인종이다>>, 아르테, 2015. (강주현역)

14) 말리노프스키, <<원시신화론>>, 민속원, 2001.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외삼촌의 부활, <<우리 모두는 식인종이다>>, 아르테, 2015.

허위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하는 사고의 작용 내지 인간의 정신 작용을 하는 결과라고 파악한다.

정신분석학적 방법은 유파마다 다르기는 해도 이들의 상관성은 인간의 이면적이고 심층적인 사고의 표현을 중시한다. 그것에 일정한 힘이나 능력이 있다고 파악한다. 무의식의 심층적 기저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셈이다. 근친상간에 대한 술한 사례들은 공동체의 윤리에도 부적합하고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잘 알기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는 민족적인 특수성을 지닌 민족지에서 벗어나서 인류의 보편적 사고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이면의 무의식적 기저를 인정하고 이러한 무의식은 사실 생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애욕이나 권력욕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소인이 된다. 모든 문화적 창조를 비롯하여 심지어 종교, 도덕 등의 요소가 이러한 것들의 산물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해석의 근거로 활용된 바 있다.

게다가 정신분석학의 분파이면서 바람직한 전환의 한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융의 분석심리학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보다 인간의 원형상에 주목하면서 집단의 무의식과 개인의 무의식을 결합하여 개인의 전인격화를 비롯하여 한 인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성숙 과정으로 이러한 이야기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신화의 비틀어진 사례보다 민담과 같은 것, 독자적인 용어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분석하는 하나의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제의학파는 신화와 의례의 관계를 해명하면서 신화는 의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의례는 신화를 해명하는 틀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동적으로 신화와 의례를 해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례에서 구술되는 신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의례를 해명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인류의 창조로 여겨지는 남매의 관계가 사실은 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의 의례적 건강함을 통해서 사제자가 의례를 특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라고 하는 점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의례와 신화의 역동성이나 상호보완적인 관련성을 해명하려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를 보이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 연구의 길이 이러한 것만 있지 않다. 오히려 역동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관점의 신화 연구 길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신화의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신화가 어떠한 신화인가에 의해서 연구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연구하는 제주도의 본풀이는 서사무가, 무속신화, 구전서사시, 무당서사시의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속신화이므로 신화적인 관점의 연구는 불가피함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 본풀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주도 본풀이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 연구의 길은 위에서 말한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가? 그 길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연구의 왕도가 따로 있는가? 이 문제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서사시의 분포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주목하면서 연구의 길을 개척해야만 한다. 제주도는 본풀이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도 본풀이는 살아 있는 신화이고, 곳에서 구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죽은 신화와 살아 있는 신화는 어떻게 다른가? 죽은 신화는 신화가 남아 있으나 그 맥락이나 과정을 상실한 것이다. 이와 달리 살아 있는 신화는 의례가 살아 있으며, 의례에서 구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신화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신화적 특성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의미와 새삼스러운 연구의 길을 찾게 한다. 그러한 점을 찾아서 특성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론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자료와 자료를 다루는 방법에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를 충실하게 보고 현장에서의 실감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론과 방법이 정립될 소지가 열린다. 자료를 충실하게 보면서 여러 나라와 민족의 신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를 모르고 이론만을 알게 되면 허황한 지식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료에 대한 실감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